

〈論文抄〉

통신교육의 계열화와 계층화*

— 고유한 교역의 형성을 위하여 —

A Study on pluralistic Reformation for Education of Telecommunication
—for Establishment of Individual System for Comm. Education—

趙 鼎 鉉**

by Jhow, Jeong-Hyeon Prof. ph.D.

((1978. 12. 30 접수 : received December 30th, 1978))

(要 約)

사회적 유대와 인류공동체로서 통신작용은 수시 도처에서 인류생활과 밀착되고 있다. 모든 통신작용은 그 주체인 인력과 그 이해 및 이용방법을 배양전수(傳授)하는 통신교육에 의하여 유지되고 개발되는 것이다. 통신작용은 기술적 요소를 포함 하지만 사회과정 또는 사회작용의 범주에 속함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요건을 겸비해야함을 원리로 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교육은 기술적인 내용과 사회적인 지식을 함께 포함한 종합과학적인 시점에서 시도되고 실천되어야 할 독특성을 갖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 교육이 기술적 비중을 높이면서 사회적 측면을 줄이는 불균형을 강요당함에 따라 그 본질적 속성과 독특성을 변질 혹은 상실해가는 위기를 파생시키고 있다. 즉, 일개분과에 불과한 기술만으로서 「통신」이라는 독자적 사회성과 통합과학성을 감당할 수도 없거니와 「통신」을 총체적으로 표징(表徵)할 수도 없는 1개 요소에 그치고 말기 때문에 교육적체제의 주체성이나 자율성은 고사하고 타에 종속돼 버리거나 부수하게 되는 것으로 귀착되고 만다. 결국 「통신영역」이 자주성을 잃어가는 요인은 바로 이러한 경향에서 조성되거나 파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원래 통신학은 중층 다분과적(重層多分科的)인 현대과학의 원천이며 그 모체일 뿐 아니라 그 자체의 속성이 인문, 사회 및 기술 등 분과를 포괄, 통합한 종합과학임이 그 원리이다. 그러므로 통신교육은 이 다원적 원리와 그를 뒷받침하는 국제조약, 통신관제법 및 제 학설에 순응할 수 있게 복귀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우리나라에는 기위 이 통신원리에 입각한 교육적계보(系譜)와 교육이념이 정립, 계승돼 왔었고 또 그 이념에 바탕을 가진 교육목표를 지향하여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체제 밑에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실효를 거두어 왔다. 다만, 1961年 당시 한번의 그릇된 정책결정이 통신교육의 유일한 정통적(正統的) 표본이었던 체신학교를 즉흥적으로 폐쇄케 해버렸고 또 이 교육에 대한 국가적관리를 분산 약화했기 때문에 오늘날 통신교육은 실향탈적(失鄉脫籍)된 이산난민과 같이 되어 가고만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통신학(通信學)원리는 현대과학적 강도를 심화, 고도화해 가고 있으며 이것을 방증(傍證)해주는 각종 국제협약과 법령이 유효하게 현행되고 있을뿐 아니라 그 교육내용의 다원적 본질이 불변일관(不變一貫) 되고 있다. 그러므로 통신교육을 위한 교육관계법이나 교육행정은 그 종합적 원리에 적응할 수 있

* 本 研究要約는 1978年學 文敎部 學術研究助成費 支援에 의한 論文으로서 原文은 光云工大論文集, 第8輯에 掲載되었다.

** 韓國通信學會長

개 보완 개정되어야 함이 요청된다. 그리하여 통신교육을 위한 전문적 계열과 체계적 등급이 정착화되어 하나의 독자적이고 통합적인 교통(敎統)과 자율적 교역(敎域)이 복원(復元) 생취 되어야 함이 절실한 실정이다.

통신교육은 통신과학적 원리를 저초(底礎)로한 독립적 계열화와 합리적 계층화를 통하여 그 독특한 교육 체제를 점거(占據) 함으로서 다른 동위(同位) 계열과 대등하게 공존공영할 수 있으며 내재적 각 분과를 유기적으로 포괄, 집약, 유효화할 수 있는 것이다.

통신교육의 횡적계열은 독립되어 다른 계열에 속함이 없이 동위적이어서야 하며 내재적 구분은 통신관리, 설비기술 및 통신연구로 3분화되고 그 종적 계층은 고교, 전문대, 대학 및 대학원의 학적 位階에 준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보다 수직적인 세분이 가능하다. 이러한 종합적 체계화와 그 독자적 체제의 확립은 문교법령과 국가적 차원의 교육행정을 보완 개선함에서 그 시점을 삼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통신교육을 위한 교육적 체제는 전기통신의 제원리(諸原理)와 이것을 방증(傍證)하는 제법리 및 이용 사회의 다변적 요청에 따라 관계 각 분과가 하나로 집약된 독자적 계열을 형성하여야 하며 충분한 운용상 자율성을 부여 받아야 한다. 전기통신이 교유의 교육계보를 되찾고 그 전문적 敎統과 자율적 교역이 확립, 형성될 수 있다면 그 원리가 교육현장으로 확대되어갈 것 이기 때문에 그 동안 본의 아니게 파생된 수다한 타의적 역리(逆理)와 탈선된 부조리가 통신영역에서 제거될 수 있어 밝은 그 본질(本質)이 회생(回生)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ABSTRACT =

A Study on pluralistic Reformation for Education of Telecommunication ——for Establishment of Individual System for Communication Education——

by Jhow, Jeong-Hyeon Prof. Ph. D.

Communication actions as a social band or Human community stick (fast) to humanbeing ceaselessly without stopping everywhere.

All of comm. actions can be kept up and developed by the education of its own.

Comm. actions have to include a character of social process, and so for it the social science should to be some essential part of it.

Therefore, Comm. education have to be schemed for achieving with a point of view of synthetical science including technical and social factor.

However, recenterly Comm. education be suffered to lose of itowns essential attribute and individual independence becausing to reduce social weight recklessly in their education.

It is a prindiple that Comm. science is an integrate science being composed of human, social and technical subdepartments and so comm. education have to obey for Comm. constuctional theory, international and social claim.

Originally in Korea a educational idea and genealogy forming by the comm. scientific theory has inherited on orthodoxy.

But in 1961, communication college that is only the orthodox model of Comm. education, was forced to close by some reckless policy and then the national administration for the Comm. education have been weakened, and so recently it's education became to degenerate as out of genealogy or nonsystem alike some scattering Family.

On the other side, today comm. science make to it's modern scientific factor and to keep its integrate level, therefore, all of educational provisions and administration for the telecomm. should to be supplement to be fit for their plural chatacters.

Comm. education have to occupy an individual educational system through the comm. theory, and then it can be coexisted with neighbour scientific field equally and can include, connect coordinate or effect its inference in each subfactor organically.

Finally, educational system for telecommunication should to be requested as preeedence that independent field including pluralism must be formed and sufficient autonomy be guarenteed, and so Comm. education must be to restored its orthodox genealogy and be recovered individual system and selfrestraint field, and then it can be accomplished its own duty for nation and society.